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 도포의 구성연구

- 조선시대 성산 배씨 문중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

김 정 애 · 이 상 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전공 박사수료 · 건국대학교 패션디자인학부 명예교수⁺*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Dopo(Long Robe) Found in the Tomb of Bae Cheonjo(1532)

- Focusing on the Clothing Found in the Tombs of the Seongsan Bae Clan in the
Joseon Dynasty -

Jeong-Ae Kim · Sang-Eun Lee⁺*

Completed Doctoral Program in Fashion Design, Design College, Kunkuk University

Honorar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Kunkuk University⁺*

(2015. 12. 31 접수; 2016. 5. 3 수정; 2016. 5. 9 채택)

Abstract

Dopo was the clothing of the Joseon period, which had a strong value of Confucianism. Apart from the kings and princes, government officers and Confucian literati wore Dopo as their official clothing and the uniform. The basic form of Dopo had the straight collar similar to Jikryeong. The difference is the shape of a Mu, which was fixed inside or on the back section along the side line of the front section and made two flaps on the back section.

The clothing found in the tombs of Bae Cheonjo (1532~?) are from the mid-16th century to the early 17th century with the clothing style of the early Joseon period. The outer collar of all clothing was the shawl collar except for the Sibok and the inner collar was sewn to this. Two items had square tray collars, which were folded in half and sewn inside in half. The sleeve had a straight inseam from the armhole and its end around the wrist was round and wide. The carp-shaped inseam of the sleeve and wide sleeve indicated a change of sleeve shape. The shapes of the collars and the wide overlapped section of the dual collars demonstrated the shapes of the initial outer robes. The man's outer coats with wide sleeves were mostly cotton-quilted clothing.

As described above,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shapes of outer robes including Sibok, Jikryeong and man's outer coats on the basis of the clothing and artifacts from the tomb of Bae Cheonjo (1532~?) and examined the shapes, composition and features of Dopo. This paper aims to improve awareness of the wisdom and spirit of ancestors in life hidden in the sewing of the three Dopo items and on the importance of historical research.

Key Words: Clothing found from tombs(출토복식), Dopo(도포), Shapes(형태), Mu(무), Spirit(정신)

I. 서론

출토복식은 분묘(墳墓)를 이장 하면서 발굴되는 복식으로써 묘주가 생전에 착용하였던 의복이므로 우리의 과거 복식 뿐 아니라 피장자의 생존 시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복식은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정치·경제·종교 등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자연환경의 변화를 담고 있어서 그 시대를 구분하는 중심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출토복식은 주로 도시가 아닌 지방에 있는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반가의 복식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출토복식은 실물자료이기 때문에 문헌자료나 회화자료와 같이 시각적인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태 및 색, 직물, 문양, 바느질 법 등 구성상의 특징과 정신과 사상까지도 관찰 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복식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토복식이 제공하는 의복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의복의 유형은 상의류와 하의류로 구분된다. 상의류에는 저고리와 포류, 하의류는 바지와 치마, 여성의 속곳류로 분류 할 수 있다(충북대박물관, 1995). 이 외에 명목, 악수 등, 수의(壽衣) 일체를 포함한다. 남성의 의복은 주로 포(袍)류가 많이 나타나며, 여성의 의복은 저고리와 치마, 속곳류가 많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조선시대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시아버지 배천조의 의복은 주로 포(袍)류로써 시복과 직령, 도포, 중치막, 과두와 저고리, 적삼 그리고 며느리 고성 남씨의 의복은 장옷이 여러 점 있고 주로 저고리와 치마, 속곳류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 포류를 중심으로 하여 도포 3점을 관찰하고 재현하려 한다.

도포는 왕과 왕세자 이하 관원 및 사대부가 착용하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예복으로서 도포에 관한 문헌이나 풍속화,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고서에서 접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근희(1986)의 道袍에 關한 研究, 이은주(1998)의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

적 분석, 김정애(2010)의 조선시대 道袍의 形態變化에 관한연구, 안전혜(2011)의 朝鮮時代 出土된 道袍의 형태 및 바느질 연구 등의 연구에서는 도포의 기원과 착용신분, 착용용도, 형태의 변천과정, 구성과 특징, 치수, 바느질 방법에 대하여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도포를 접하면서 아직 알 수 없었던 그 속에 내재되어진 정신을 배천조 도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포의 이론적 배경과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의 현황을 고찰하고, 배천조 출토복식 도포의 구성 및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유물을 재현하고, 특정 부위에 나타나는 마름질과 바느질에 내재되어 나타나는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정신을 유물재현을 통해 함께 공감하기를 바라며 고증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도포의 복식사적 의의

도포는 유교(儒敎)를 중시하던 조선시대 사례(四禮)의 복식(服飾)으로 왕과 왕세자 이하 관원 및 유생(儒生)들의 공복(公服), 제복(祭服)으로 입혀졌으며, 사대부의 출입상복(出入上服)으로 착용하던 상류층의 대표적인 예복(禮服)이었다. 조근희(1986). 이러한 도포는 유물자료를 통해 볼 때 임진왜란 이전부터 착용되어 19세기 말 갑신제의개혁(甲申衣制改革)때 대수금지령(大袖禁止令)으로 소매가 넓은 다양한 포(袍)류와 함께 착용이 금지되고 두루마기를 예복으로 통용하였다가 다시 의례복으로 제정되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도포를 입게 되었다. 도포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천과정이 있었지만 기본 형태는 곧은 깃으로 직령과 유사하나 앞길 옆선에 붙어 뒤길 안쪽에 또는 한판에 고정되는 무가 뒷길에서 이중자락을 이루는 것이 차별된다(김정애, 2010).

2. 배천조(1532) 묘 출토유물의 고찰

1) 묘주 배천조의 인적사항

성산 배씨(裴氏)의 시원(始元)은 신라 개국 이전에 6부총장의 한 사람인 금산가리부장(金山加利部長) 휘 지타(祗沓) 호 태사(太師)공이 다른 5부총장과 함께 알천양산녹라정방임간(闕川楊山麓羅井傍林間)에서 큰 알 속에서 수양(收養)한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고 개국일등공신에 세훈 총재태사(冢宰太師)에 오르고 그 후 유리왕 9년(32년)에 금산가리를 한지부(漢祗部)로 고치고 배씨로 사성(賜姓)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증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 후손 현경(玄慶)을 증시조로 하고 본관은 시조의 세거지(世居地)인 한지부가 경주로 개칭함에 따라 경주라고 하게 되었다.

성산 배씨 배천조(1532)는 고려 태조 태사 개국일등공신인 무열공 휘 현경의 23세손이며, 고려 삼중벽상공신(三重壁上功臣) 휘 위준(位俊)의 16세손이며, 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 휘 록(祿)의 차남으로 임진왜란 때 정기룡(鄭起龍)장군과 추풍령 전투에 참전하였고,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배위 정부인 영산 김씨는 응원(應元)의 딸이다. 묘소는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아현에 있다.

삼중벽상공신 휘 위준(位俊)의 17세손이며, 가선대부 취 천조(天祚)의 외아들인 상경(尙慶)은 1575년(선조8)에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그의 배위 정부인 고성(固城) 남씨(南氏)는 여필(汝弼)의 딸이다. 슬하에 장남 시적(時迪), 차남 찰방(察訪) 시익(時益) 등 2남을 두었다. 묘소는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구 산 6번지에 있다(건국대박물관, 2007).

2) 출토유물의 현황

본 유물은 배씨 문중에서 중중회의를 거쳐 선조들의 분묘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이 자손으로서 조상을 모시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여겨 한 곳으로 모으기로 결정하고, 당시 화장이나 납골당도 언급되었지만 이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조상의 묘를 한 곳으로 이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출토품이 나오게 되자 문중에서 소중한 연구 가치로 여겨 건국대학교에 기증을 결심 하였고, 이에 따라 건국대학교 이상은 교수에

게 입수되어 유물의 수습과 보존처리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수습한 복식은 12대조인 배천조(裴天祚)와 그의 외며느리인 11대조 배상경(裴尙慶)의 배위(配位) 고성 남씨(固城 南氏)의 분묘에서 나온 것이다.

배천조의 출토유물의 규모는 시복 1점, 직령 1점, 도포 3점, 중치막 6점, 과두 1점, 저고리 3점, 적삼 1점, 대렴금, 대렴용 종교 횡교, 소렴금, 소렴용 종교 횡교, 지요, 자리, 베개, 오낭, 지신, 삼, 직물 등 27점이다.

며느리 고성 남씨 출토유물의 규모는 장옷 4점, 중치막 1점, 저고리 6점, 적삼 1점, 치마 3점, 속바지 2점, 속속곳 1점, 대렴금, 대렴용 종교 횡교, 소렴금, 소렴용 종교 횡교, 모자, 띠목, 악수, 지요, 오낭, 버선, 직물 등 29점이다(건국대박물관, 2007).

시아버지 배천조와 외며느리인 고성 남씨 이 두 사람의 복식은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맡은 시어머니와 외며느리의 손길이 함께 했을 것으로 보아 한 집안의 복식 규모를 통해 16·17세기의 남·녀 우리 복식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다.

Ⅲ.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

1. 배천조(1532) 묘 출토유물의 종류

배천조의 출토유물은 시복 1점, 직령 1점, 도포 3점, 중치막 6점, 과두 1점, 저고리 3점, 적삼 1점, 대렴금, 대렴용 종교 횡교, 소렴금, 소렴용 종교 횡교, 지요, 자리, 베개, 오낭, 지신, 삼, 직물 등 이다.

〈표 1〉 배천조(1532) 묘 출토유물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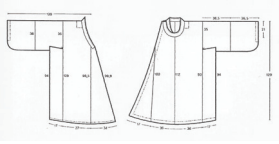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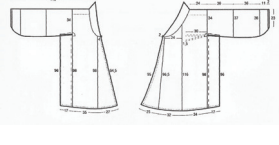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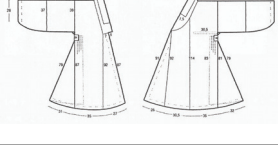
번호	유물 명칭	수 량	구 성
1	시복	1	무명
2	직령	1	무명
3	도포	3	명주, 교직, 무명, 한지
4	중치막	6	명주, 교직, 무명, 누비
5	과두	1	무명 누비
6	저고리	3	명주, 무명, 누비

7	적삼	1	무명
8	대렴금	1	무명 솜이불
9	대렴용 종교 횡교	종교1, 횡교3	굵은무명
10	소렴금	1	무명 홉이불
11	소렴용 종교 횡교	종교1, 횡교3	무명
12	지요	1	겉-명주, 안-성근명주
13	자리	1	왕골
14	베개	1	명주 솜베개
15	오냥	1	명주
16	지신	1	한지
17	삽	4	나무에 종이배접
18	직물	4편	명주, 관에 배접용

〈출처:16·17세기 출토복식, (2007). 건국대학교 박물관〉

이와 같은 유물은 유물의 분류, 세척, 건조, 보정 작업 등 보존처리의 전 과정을 거쳐 전시를 하고 보관되어 있어 우리의 복식문화유산으로서 조상들의 의생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표 1). 복식유물의 옷감은 명주와 무명이 대체적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 태종 1년(1401)에는 백성의 상·하가 모두 면직물을 입게 되었다.”는 심연옥(2002)의 기록을 보면, 이것은 당시 조선초기에는 면직물이나 주(紬)와 같은 평직물



〈표 2〉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 포류 및 특징

번호	명칭	유물 사진	도식화	구성	옷감
1	시복			홉	무명
2	직령			홉	무명
3	도포 ①			겹	겉-명주 안-무명· 교직·한지

이 일반의 옷감으로 널리 사용된 것을 추정 해 볼 수 있다.

2.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 포류 및 특징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은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의 것으로 조선초기의 복식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인 포의 기본구성은 앞·뒤 길과 소매, 깃, 섶, 무, 고름, 동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갖춘 포(袍)류는 전면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다. 포의 구분은 무의 유·무, 트임의 유·무와 위치, 선단의 유·무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조선시대 포의 깃 모양은 목판깃, 반목판깃, 칼깃, 반달 깃이 있으며, 섶에는 이중 섶, 단 섶이 있다. 무에도 삼각무, 직사각무, 사다리꼴무가 있으며, 소매에는 통수형, 봉어배래형, 두리소매형, 직배래형, 광수형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은 시대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달라져 형태변화를 이루었다. 〈표 2〉의 복식유물의 깃은 시복을 제외한 겹깃은 모두 칼깃이며 안깃의 모양은 들여 달린 것으로 되어 있고, 도포①과 중치막⑥은 반쯤 들여 달린 목판깃이다. 소매는 진동너비에서 직배래 형태로 수구 쪽 부분이 둥근 통수형이 대부분이며, 도포③중치막

4	도포 ②			겹	무명
5	도포 ③			홀	무명
6	중치막 ①			겹	겉-명주 안-모시· 무명
7	중치막 ②			숨누비	겉-명주 안-무명· 명주·모시
8	중치막 ③			겹	겉-무명 안-무명·숨
9	중치막 ④			숨누비	겉-무명 안-무명
10	중치막 ⑤			숨누비	겉-명주 안-무명
11	중치막 ⑥			숨누비	겉-명주 안-무명

<출처 : 16·17세기 출토복식. (2007). 건국대학교 박물관>

⑤⑥은 두리소매형으로 형태변화를 이루고 있다. 깃의 형태와 이중 셔의 깊이는 여밈은 초기의 포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중치막의 경우 숨누비옷이 대부분이다.

1) 시복(時服)

시복은 조선시대 관리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입을 관복으로 초기에는 흑단령이었으나 후에 홍단령을 착용하였다. 여기서 시복, 공복, 상복을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시복이 ‘공복과는 홍포에 복두가 아닌 사모를 쓰는 것이 다르다’ ‘상복과는 홍포에 사모는 같으나 흥배가 없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구별된다. ‘《경국대전》에서 시복에는 면포(綿布) 아니면 마포(麻布)를 사용하게 하였다.’ ‘《연산군일기》에는 대소 관원으로 하여금 면포(綿布)단령을 입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 21년(1884) 의제개혁 시에 흑단령으로 전용하게 되었다(김영숙, 1998). 이와 같이 조선시대 시복제도는 상복과 명칭만 다르기 때문에 혼란기를 겪어야 했다.

배천조 출토복식 연분홍색 시복은 무명으로 만든 홀 단령이다. 포의 길이는 앞길129cm, 뒤길132cm로 뒤길의 길이가 3cm더 길다. 시복의 단령 깃의 너비는 4.5~5cm이며, 정바이어스 재단이 아니다. 겹깃 끝 중간에는 매듭단추를 달았다. 겹깃은 이중 셔의 형태를 보이며, 소매는 직배래의 통수형이다. 무는 기울어진 직사각형으로 앞·뒤 무의 크기가 동일하며 73cm너비를 접고 접어 17.5cm가 되도록 하여 겨드랑이 바대에 고정시켰다. 밑단은 제물단, 선단과 수구 단은

안단을 대었으며 안선은 식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홉옷이므로 어깨와 겨드랑이에 바대가 부착되었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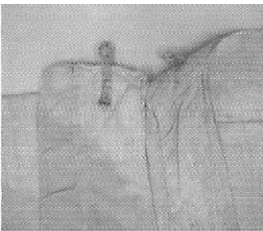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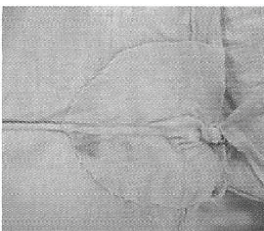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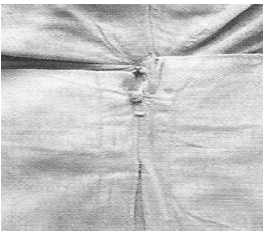
2) 직령

직령포는 곧은 깃의 다른 포와 마찬가지로 각 부위의 깃, 셔, 소매, 무의 형태가 서로 축소되거나 확대되면서 전 시기에 걸쳐 변화 되어 왔다. 배천조 출토복식 직령포는 무명으로 만든 홉 직령이다. 겹깃은 칼깃이며 안깃도 겹깃만큼 동그란 칼깃의 형태로 보기 드문 모양이다. 겹깃은 이중 셔의 형태로 여밈이 매우 깊다. 소매는 시복과 같은 통수형이다. 무는 상·하 너비가 같은 직사각형으로 앞·뒤 길에 부착 되었다. <표 3> 직령의 무너비(17cm)를 반으로 접어 중심(8.5cm)에 매듭단추를 달고 겨드랑이 바대에 고리를 달아 고정 하도록 하였다. 홉옷이므로 어깨와 겨드랑이에 바대가 부착되었다. 겨드랑 바대는 4등분한 원모양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더 하였다.

3) 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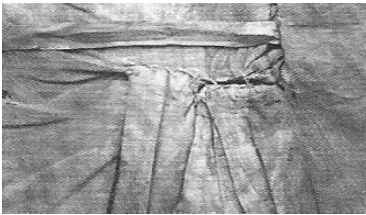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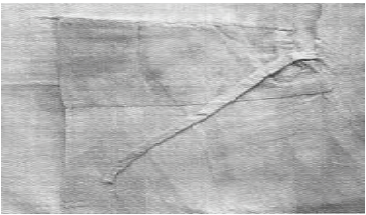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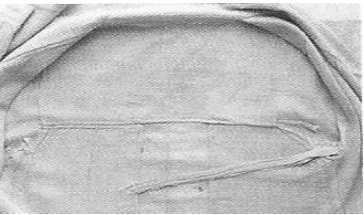
배천조 도포는 겹 도포 2점과 홉 도포 1점 모두 3점이다. 도포의 형태는 겹옷과 홉옷의 특징인 한판의 유·무를 볼 수 있고, 칼깃의 형태이며, 이중 셔의 크기에 따라 여밈의 깊이와 깃 길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소매는 통수형과 봉어배래, 두리소매형을 모두 보여 주고 있다. 무는 사다리꼴 무, 직사각형무로 구성되었고, 도포 3점 모두 뒤길에 삼각 무를 부착하였다. 특히 도포①의

<표 3> 시복 및 직령의 특징

			
시복의 단령 끝 중간에 달린 매듭단추	시복의 무를 고정 시킨 결바대	직령의 4등분한 원모양의 겨드랑 바대	직령의 무의 매듭단추를 겨드랑 바대에 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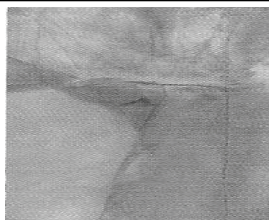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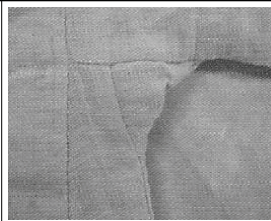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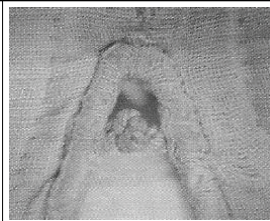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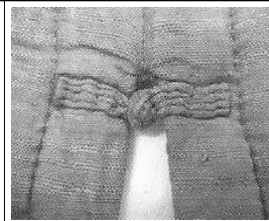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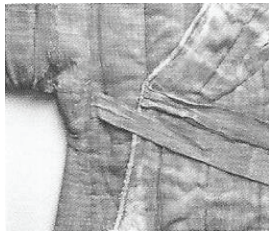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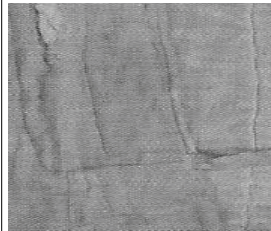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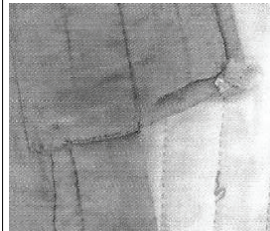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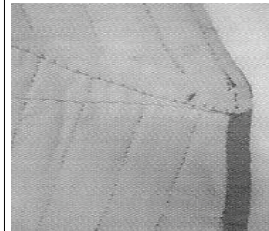
<출처: 16·17세기 출토복식, (2007). 건국대학교 박물관>

〈표 4〉 도포의 특징

		
도포①의 뒷길 안쪽에 고정시킨 주름 잡힌 무	도포②의 뒷길 안쪽에 고정 시킨 무	도포③의 한판에 연결 된 무

〈출처: 16·17세기 출토복식, (2007). 건국대학교 박물관〉

〈표 5〉 중치막의 특징

			
중치막①의 당과 사다리꼴무	중치막③의 당과 사다리꼴 무	중치막④의 옆트임 및 매듭단추	중치막⑥의 옆트임 및 쌍미리 매듭단추
			
중치막②는 칼깃의 깊은 여림의 상태	중치막②의 완전히 들어 달린 목판깃	중치막⑥의 반쯤 들어 달린 목판깃	중치막⑥의 겹깃과 겹섬의 안쪽 상태

무는 초기의 주름형으로 뒤길 안쪽에 고정 하였다. 이와 같이 배천조 도포 3점은 이중 셔츠의 크기와 소매의 형태, 무의 형태가 각각 다르므로 한 시대의 도포의 형태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표 4).

4) 중치막

중치막은 ‘中赤莫’ ‘重赤莫’ ‘中致莫’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 후에는 왕 이하 서민까지 두루 입던 편복포로서 관복의 반침옷이나 외출복으로 입었다. 형태는 깃이 곧고 소매는 넓으며, 무가 없고 양옆이 트인 세 자락의 옷이다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2008).

배천조 출토복식 중치막은 솜옷 2점, 누비옷이 4점 모두 6점이다. 중치막 깃의 형태는 모두 칼깃이며, 셔츠는 모두 이중 셔츠로 여림이 매우 깊다. 소매는 4점은 직배래의 통수형이고, ⑤⑥은 두리소매형을 띤다. 길의 좌·우 양옆선에는 삼각형 또는 사다리꼴무가 모두 부착되었으며, 당이 달리고 중치막의 특징인 옆트임이 있는 옷이다. 중치막의 옷감은 명주와 무명으로 만든 솜누비 옷으로 잔누비, 굵은누비, 솜옷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다른 포에 비해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되어 착용빈도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표 5).

〈표 6〉에서는 길이, 품, 화장의 변화의 증감에 따라 포의 착용범위를 살펴보았다. 시복과 직령과 도포에 비해 중치막은 길이와 화장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숨 누비임에도 품의 치수는 10cm~20cm 가량의 차이를 볼 때 시복과 직령, 도포는 표의(表儀)로 착용되었고, 중치막은 주로 겨울철 받침옷으로 착용된 것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도포의 기본구성은 앞·뒤 길과 소매, 깃, 섹, 무, 한판(어깨바대), 결바대, 고름, 동정 등으로 구성 된다. 그러나 도포가 겹이나 홀이냐에 따라 그 구성과 바느질법이 달라지고 무의 구성에 의하여 다른 포류와 구분 된다.

〈표 7〉의 배천조 도포는 겹옷이 2점, 홀옷이 1점이다. 3점 모두 앞여밈이 매우 깊기 때문에 이중섉의 형태로 나타나며 뒷길에도 삼각무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배천조(1532) 도포의 구성 및 특징

〈표 6〉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 포의 착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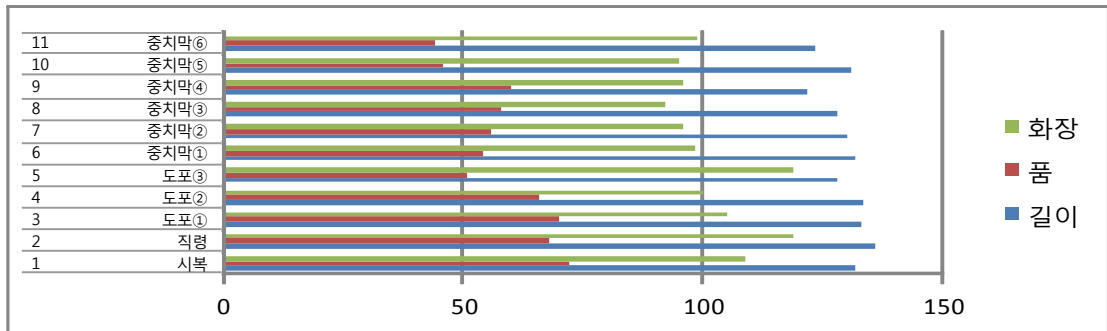
(cm)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명칭	시복	직령	도포①	도포②	도포③	중치막①	중치막②	중치막③	중치막④	중치막⑤	중치막⑥
길이	132	136	133	133.5	128	132	130	128	122	131	123.5
품	72	68	70	66	51	54	56	58	60	46	44
화장	109	119	105	100	119	98.5	96	92	96	95	99
구성	홀	홀	겹	겹	홀	숨	누비	숨	누비	누비	누비

〈출처: 16·17세기 출토복식, (2007). 건국대학교 박물관〉

길이, 품, 화장의 변화율

(cm)



〈표 7〉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유물 도포



1) 도포 1-1의 특징

도포의 겹감은 진한 쪽색 명주, 안감은 무명, 겹섧 안감부분이 교직으로 된 겹 도포로서 안감 속에 한지를 넣어 바느질 된 겹 도포이다. 도포의 특징은 겨드랑이에는 가로·세로 3.5×3.5cm의 당이 달려있고, 무는 조선 초기 양식으로 앞길에 붙은 사다리꼴무 7cm와 직사각형무 32.5cm, 39.5cm를 주름 3개를 접어 12cm의 너비를 뒤길 안쪽 안감에 감침질로 고정시켰다. 당 아래 겨드랑이 부분에는 옷의 하중을 고려하여 앞·뒤로 사각형의 결대기를 5땀 상침하여 부착 하였다. 겹깃은 칼깃이며 안깃은 반쯤 들어 달린 목판깃이다. 옆선과 도련, 수구에 5cm 간격으로 2땀 상침을 하였다.

2) 도포 1-2의 특징

도포 1-2 안과 같이 모두 소색 무명으로 만들어진 겹 도포이다. 겨드랑이에 2×2cm의 당이 달려있고, 무는 앞길 옆선에 붙은 사다리꼴무, 직사각형무가 겹도포의 양식으로 뒤길 안쪽에 감침질로 고정되었다. 겹깃은 칼깃이며, 안깃은 들어 달린 목판깃이다. 동정은 명주로 너비 8.5cm, 길이 62.5cm이다. 겹고름은 2.2×45cm 정도이며, 안고름은 1×30cm 고름이 남아있다.

3) 도포 1-3의 특징

배천조 유물에서 도포 3점 중 무명으로 만든 홀 도포이다. 형태는 홀도포의 특징인 한판이 있고, 한판에 전삼(이엽삼)이 연결 되었다. 깃은 칼깃이며, 섧은 이중섧의 형태인데 섧 너비에 비해

〈표 8〉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 도포의 형태분석

(cm)

	도포 1-1 겹	도포 1-2 겹	도포 1-3 홀
길	앞·뒤 길이가 같다.	앞·뒤 길이가 같다.	앞·뒤 길이가 같다.
소매	통수형	붕어배래형	두리소매형
깃	겹깃-칼깃 안깃-반쯤들어달린목판깃	겹깃-칼깃 안깃-들어달린 목판깃	겹깃-칼깃 안깃-들어달린 목판깃
섧	이중섧	이중섧	이중섧
무	사다리꼴무/직사각형무 주름3개	사다리꼴무/직사각형무	작은사다리꼴무 2개/직사각형무
한판	무	무	유
당	3.5×3.5	2×2	무
고름	안고름-2.3×30 결대기-4.5×7×2	겹고름-2.2×45 안고름-1×30	겹고름너비2.2

〈출처: 16·17세기 출토복식, (2007). 건국대학교 박물관〉

〈표 9〉 1-1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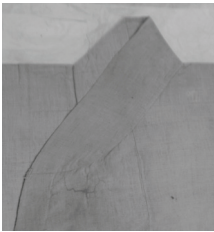











〈표 10〉 1-2의 특징

					
칼깃·이중섀·동정	안깃의 들어 달린 모습	옆트임 및 당	무안감 상 부분 쪽이음과 고정	도련 안감의 쪽이음 상태	겉섀의 안쪽 쪽이음

〈출처: 16·17세기 출토복식, (2007). 건국대학교 박물관〉

〈표 11〉 1-3의 특징

				
겉섀·칼깃	안깃 및 안고름 위치	안섀의 쪽 이음	우측2개의 사다리꼴무의 중심 골선이음	좌측2개의 사다리꼴무의 중심 식서이음
				
한판에 연결된 뒷무	겉바대 및 안고름	겉섀 모서리의 쪽 이음	제물 밑단과 선단의 쪽 이음	제물 밑단의 쪽 이음

〈출처: 16·17세기 출토복식, (2007). 건국대학교 박물관〉

옷감 폭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는 앞길에 작은사다리꼴무가 2개 달리고, 직사각형무를 부착하였다. 소매는 두리소매 형태의 배레이다. 뒷길에도 삼각무가 달렸는데 옷감의 폭의 한계를 보여준다. 급격하게 넓어진 A라인 형태의 조형적인 특징으로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옷이다. 옷감은 36cm 폭을 사용하여 각 폭을 연결할 때 식서를 최대한 이용하였으며, 안섀단, 수구단, 도련단은 제물 단이며, 그 외 겉섀단과 뒷무 옆선 단은 별단으로 하였다.

4. 유물재현

1) 도포 1-1

1-1 겹도포에 사용된 바느질법은 온박음, 반박음, 흠질, 공그르기, 5땀 상침, 2땀 상침, 1땀 상침이다. 시접방향은 등술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배래시접은 뒤쪽으로, 그 외 시접은 길 쪽으로 가게 한다. 마름질 - 먼저 제도를 하고 제도치수에 시접분을 가산하여 겉감, 안감을 마름질하고 한지는 안감에 끼워 마른다. 안감에 한지를 대고 시침한다.

〈표 12〉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 도포의 바느질분석

(cm)




	도포 1-1 겹	도포 1-2 겹	도포 1-3 홑
등슬	겉감·안감-고운 홑질,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	겉감·안감-고운 홑질,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	온박음·식서이음,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
겉섶	이중섶-큰섶은 곧은선을 길에 연결, 시접은 길쪽, 작은섶은 곧은선을 큰섶에 연결, 시접은 큰섶쪽	이중섶-먼저 큰섶의 곧은선을 길에 연결, 작은섶의 곧은선을 큰섶에 연결, 시접은 모두 길쪽	이중섶-큰섶은 식서이음, 시접은 섶쪽, 포폭의 한계로 섶하 부분 식서이음 가름술
안섶	길의 중심선에 엇선을 연결, 시접은 길쪽	길의 중심선에 엇선을 연결, 시접은 길쪽	엇선을 길에 연결, 엇선으로 말아 감침질, 시접 길쪽
한판			앞길쪽 10와 어깨선, 고운 감침, 안쪽에서 고정
소매	소매폭을 잇고, 길의 진동점까지 고운홑질, 시접은 길쪽	소매폭을 잇고, 길의 진동점까지 고운홑질, 시접은 길쪽	포폭 식서이음, 가름술
당	앞쪽에서 식서방향, 진동아래와 소매아래쪽을 연결, 시접은 길과 소매쪽, 뒤쪽은 배래 할 때	앞쪽에서 식서방향, 진동 아래와 소매아래쪽을 연결, 시접은 길과 소매쪽, 뒤쪽은 배래 할 때	
무	앞길 옆선에 사다리꼴무와 직사각형무를 연결, 시접은 길쪽, 마무리-주름잡아 성근감침으로 뒤길 안쪽 안감에 고정	앞길 옆선에 사다리꼴무, 직사각형무를 연결, 시접은 앞길쪽, 사다리꼴무쪽	앞길 옆선에 사다리꼴무2개, 직사각형무 연결, 엇선으로 말아감침, 시접은 길쪽, 직사각형무쪽, 한판에 홑질과 감침질로 연결
뒷길무	삼각무의 곧은선을 뒷길의 당아래에서 3.5 아래 연결, 시접은 길쪽	당아래에서 10 아래 삼각무의 곧은선을 연결, 시접은 길쪽	뒤길 하단에 삼각무, 식서이음, 가름술
수구	배래를 한 다음 겉·안을 맞춰 공그르기로 마무리	안쪽에서 홑질	2.5 제물단, 고운 감침질
배래	겉과 안을 따로 바느질하고 시접은 뒤쪽	겉과 안을 따로 바느질하고 시접은 뒤쪽	말아감침질, 시접은 뒤쪽
도련	겉·안을 맞추어 섶선, 앞·뒤도련, 무선을 홑질, 시접은 겉감쪽	겉·안을 맞추어 섶선, 앞·뒤도련, 무선을 홑질, 시접은 겉감쪽	4.5 제물단, 감침질
깃	겉깃과 안깃을 따로 만들어 단다.	겉깃과 안깃을 연결하여 달고, 고대부분의 길시접을 안깃에 연결, 안깃 공그르기, 안깃머리 상침	겉깃·안깃 골로하여 박음질, 안쪽에서 접어박고 시접접어 안깃 공그르기
겉바대 (겉대기)	앞·뒤4.5×7의 겉대기 중심에 0.6×4의 고리를 달고, 당아래에 5땀 상침으로 고정		타원형, 소매겨드랑에서 약3×5 감침질
고름	겉고름, 안고름을 온박음으로 단다.	겉고름, 안고름을 온박음으로 단다	
동정	75×7.5, 1.5간격, 2.5간격 두 줄을 1땀 상침	62.5×8.5, 1.7간격 1땀 상침	
단			안섶-제물단, 도련·겉섶·수구·뒤길·직사각형무-별단, 감침질

<표 13> 1-1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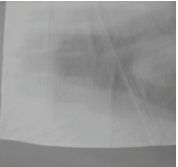
(cm)

도포 치수					
길	뒤길이	133	겉 셔	길이 내/외	144/92/91
	앞길이	134.5		너비 상/하	23 · 1.2/31 · 28
	화장	105	안 셔	길이 내/외	92/89
	폼	70		너비 상/하	7/27
	고대	22	뒷 무	길이 내/외	87/85
진동	39	너비 상/하		0/26.5	
소매	너비	37	앞 · 사다리꼴무 직사각형무	길이 내/외	89/84
	수구	26		너비 상/하	7/32.5
	너비	12		길이 내/외	84/84
깃	겉깃길이	53~55		너비 상/하	32.5/32.5
	안깃길이	42		당	당
	동정너비	7.5	겉대기	겉대기	4.5×7

<표 14> 도포1-1 재현

					
칼깃·이중셔·당·겉대기	한지 심대기	겉셔·고름	사다리꼴무·직사각형무의 펼친 모습	주름 잡힌 무 안감에 고정	착용시 겉대기와 옆 무의 모습

<표 15> 도포1-2 재현

					
칼깃·이중셔·당·고름	안깃·겉고름·안고름·동정	사다리꼴무·직사각형무의 펼친 모습	뒷깃 안감에 고정된 무	좌측무 안감의 쪽이음	우측무 안감의 쪽이음

2) 도포 1-2

1-2겹 도포는 사용된 바느질법은 겉감·안감 고운 홈질, 온박음, 반박음, 공그르기, 감침질 등이다. 시접방향은 등솔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배래시접은 뒤쪽으로, 그 외 시접은 길 쪽으로 가게 한다.

마름질 - 먼저 제도를 하고 제도에 시접 분을 가산하여 겉감, 안감을 마름질한다.

3) 도포 1-3

바느질은 감침질, 온박음, 반박음, 말아서 감침질을 하였으며, 가름솔, 싹솔, 등으로써 바느질 땀은 전체적으로 2m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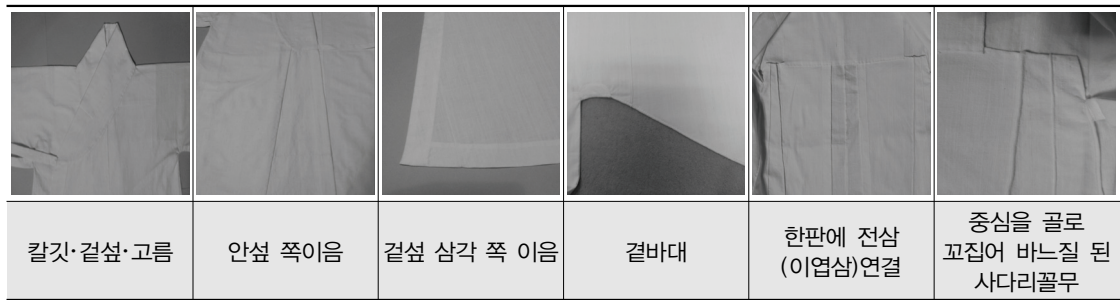
마름질 - 먼저 제도를 하고 시접분을 가산하여 마름질 한다.

〈표 16〉 1-3 치수

(cm)

도포 치수				
길이	130	겉섀	너비 상/하	19/45.5
뒤품	25.5	안섀	길이 내/외	114.5/101
화장	121.5		너비 상/하	7.5/23.5
진동	24.5	사다리꼴무	길이 내/외	93/91.5
고대	21		너비 상/하	2/15
수구	22	직사각형무	길이 내/외	103.5/1.3
겉고름	2.5 × 50 × 55		너비 상/하	17/17
안고름	2 × 45 × 45		길이 내/외	108/108
		깃	너비/ 길이	11.5/102

〈표 17〉 도포1-3 재현



〈표 18〉 1-2 치수

(cm)

도포 치수				
길이	133.5	겉섀	너비 상/하	0.5, 18.5/24, 28.5
품	33	안섀	길이 내/외	111.5/ 95.5/ 92
화장	100		너비 상/하	6/28
진동	36	앞무	길이 내/외	93/93
고대	18		너비 상/하	0, 1, 16/15, 15, 16
수구	22	뒷무	길이 내/외	93/98/98
고름	2.2 × 45.5/ 1 × 30		너비 상/하	0/27.5
깃	47.5/43/10.5		길이 내/외	83/90

IV. 결론

도포는 임진왜란 전부터 유교(儒敎)를 중시하던 조선시대 사례(四禮)의 복식(服飾)으로 상류층의 대표적인 예복(禮服)이었다. 도포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천과정이 있었지만 기본 형태는 곧은 깃으로 직령과 유사하며 앞길 옆선에 붙어 뒤길 안쪽에 또는 한판에 고정되는 무가 뒷길에서 이중자락을 이루는 것이 차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을 대

상으로 시복과 직령, 중치막 등 포류의 기본 형태를 이해하고 도포의 형태와 구성 및 특징과 바느질에서 내재되어 나타나는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정신을 공감하고 본받고자 하였다.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은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의 것으로 조선초기의 복식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1. 출토복식의 형태는 시복의 깃은 단령이며, 시복을 제외한 깃은 모두 직령이며 칼깃이다. 안깃의 모양은 들어 달린 깃과 반쯤 들어 달린 깃

으로 나타나며, 앞여밂이 깊으므로 나타나는 이중 섯의 양상은 조선초기의 형태를 보여준다.

2. 소매는 진동너비에서 직배래 형태로 수구 쪽 부분이 둥근 통수형에서 봉어배래형, 두리소매형으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배천조(1532) 묘 출토복식 시복과 직령의 무의 형태는 임란전후의 직사각형무의 위를 접어 끈이나 매듭단추로 겨드랑 바대에 고정하는 박 주름 형이다. 송희종의 16c 중후반 대전선사 박물관(2010)과 윤선언의 1580~1628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2009), 전 박장군·임란전후 충북 대학교박물관(1995)의 발표된 단령과 직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치막의 무는 사다리꼴 무 또는 삼각 무와 당이 달리고 중치막의 특징인 옆트임이 모두 있다.

4. 배천조 도포는 겹옷이 2점, 홑옷이 1점이다. 3점 모두 앞여밂이 매우 깊기 때문에 칼깃과 이중 섯의 형태로 나타나며, 뒷길에도 삼각무가 부착되어서 안정적이고, 소매는 통수형, 봉어배래형, 두리소매형으로 16·17세기 도포의 형태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5. 도포1-1은 안감 속에 한지를 넣어 바느질된 겹 도포이며, 특징인 무의 양식은 앞길에 붙은 사다리꼴 무와 직사각형무의 너비 39.5cm에 주름 3개를 접어 12cm의 너비를 뒤길 안쪽 안감에 감침질로 고정시킨 양식으로 고정된 방법은 다르지만, 김약(1559~1625) 묘 면 도포 겹 도포, “겹 주름 부분은 앞길 안쪽에 고정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뒤길 안쪽에 고정되었다”고 하여 무의 양식을 조선 초기 단령이나 직령에서 볼 수 있는 ‘다중 안주름형’으로 보는 이은주(1998)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6. 도포1-2는 겹과 안이 모두 소색 무명으로 만들어진 겹 도포로서 무의 양식은 앞길에 부착된 사다리꼴 무와 직사각형무가 뒤길 안쪽 안감에 감침질로 고정되었다. 뒷길에는 겨드랑이에 2×2cm의 당이 달렸고 당 아래 10cm에서부터 시작되는 삼각무가 달려 안정적이다.

7. 도포1-3은 무명으로 만든 홑 도포로서 홑 도포의 특징인 한판이 있고 한판에 작은 사다리꼴 무 2개와 직사각형무가 연결되었다. 뒷길의 붙은 삼각 무와 이중 섯의 양식은 점차 아랫부분에 부착되어 옷감의 폭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

같으나 진동이 급격히 작아지고 소매도 두리소매형으로 크게 변화의 양상을 보여 주므로 A라 인형태의 조형적인 특징이 있는 옷이다.

8. 바느질은 겹옷과 홑옷이므로 구성에 따라 겹옷은 주로 홑질로 바느질 되었고, 홑옷은 박음질로 식서이음을 최대한 이용하였고 홑옷의 푸서술기는 말아 감침으로 섬세하게 바느질 되었다. 홑옷의 것은 처지는 것과 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번을 곱게 바느질을 하였다.

9. 도포형태의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16·17세기의 배천조 도포의 구성과 바느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바느질 뿐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나타나는 선조들의 정신과 건강한 삶의 지혜가 배어 있는 당시로서 당연한 일상의 생활로써 물자를 귀하게 여기는 검약적인 생활의 한 면을 볼 수 있었다. 겹감이 명주인 겹 도포1-1은 펠력이면 보일듯한 겹섯의 안쪽 부분만 무명이 아닌 교직으로 하였고, 겹도포 1-2는 겹섯 안과 도련곡선부분, 무의 상부분, 안깃 부분에서는 길에서 올라오는 시접을 이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안감에서 삼각형, 사각형의 쪽 이음을 하였다. 홑 도포1-3은 안섯의 이음과 겹섯단의 모서리 부분은 5쪽이나 이음을 하였고, 도련 단은 제물 단으로 주로 섯과 무의 어긋나는 부분과 선단에서 여러 쪽의 이음을 하였다. 또한 2개의 작은 사다리꼴 무는 우측무의 중심은 굽선으로 꼬집어 박고 좌측무의 중심은 식서이음을 하도록 마름질을 함으로써 옷감이 무겁지 않음과 절약되는 상황이다. 도포1-2 겹 도포 재현에서 겹·안 두감이 필요하지만 마름질과 바느질에서 겹은 제대로 하고 안감은 길만 제대로 하고 섯과 무, 소매는 식서 끝을 최대한 이용하고 남은 천들을 써서 쪽 이음을 한 결과 옷감이 크게 절감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이는 겹면에서는 제대로이지만 보이지 않는 안감이나 안단 부분에서는 어떤 규칙이 없이 있고 또 있고 삼각형, 사각형의 쪽 이음을 하여 자투리 조각을 최대한 활용함의 지혜를 느낄 수가 있었다. 하찮은 것 같으나 작은 부분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 쓰는 선조들의 일상의 훌륭한 정신을 500여 년 동안 문혀있던 복식유물의 문화유산은 통해 깨닫게 되어 기쁘고, 이것이 풍요가 넘치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교훈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복식문화와 함께 계승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건국대학교박물관. (2007). *16~17세기 출토복식*. 서울: 건국대학교 박물관.
- 권은영. (2008). *배천조 출토복식 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애. (2014). *조선시대 남자 포에 나타난 무의 형태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도서출판 미술문화.
- 김정애 (2010). *조선시대 도포의 형태변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정사공신, 신경유公墓출토복식*. 용인: 단국대학교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09). *정사공신, 신경유公墓출토복식*. 용인: 단국대학교
- 대전선사박물관. (2010). *웃습사이로 비치는 조선 대전*. 메세나출판사.
- 심연옥. (2002). *한국 직물 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 안전혜. (2011). *조선시대 출토된 도포의 형태 및 바느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수학사.
- 유정순. (2010). *근세 한일 남자 포의 조형적 특성 비교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개정판). 서울: 교문사.
- 이은주. (1998). *도포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영. (1989). *한국직령교임식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근희. (1985). *도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충북대학교박물관. (1995).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충북: 충북대학교 박물관.